탁구 대표팀 신유빈이 21일 중국 항저우의 궁수 캐널 스포츠파크 체육관에서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탁구 남녀 단체전 예선 첫 경기에 앞서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년을 더 기다렸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열전 16일 돌입

〈9월23일~10월8일〉

코로나로 1년 연기…아시아 45개국 1만1970명 출전
한국, 수영·양궁 앞세워 금메달 50개로 종합 3위 목표

아시아 대륙 스포츠 최대 축제인 하계 아시안게임의 성화가 5년 만에 다시 타오른다.

올해로 19회를 맞는 하계 아시안게임이 23일 오후 9시(한국시간) 중국 저장성의 성도 항저우의 올림픽 스포츠센터 스타디움에서 성대한 막을 올린다.

이번 아시안게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중국 내 확산 여파로 1년 연기돼 열린다. 2023년에 벌어지지만, 공식 대회 명칭이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인 이유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대회 이래 5년 만에 열리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은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 시대에 열리는 메이저 국제 스포츠종합대회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는다.

항저우의 상징인 연꽃을 테마로 삼아 지어진 올림픽 스포츠센터 스타디움은 '큰 연꽃'으로 불린다. 46억명에 달하는 아시아인의 희망을 담은 성화는 큰 연꽃 속에서 뜨겁게 피어오른다.

서서히 일상이 정상을 찾아가면서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소속 45개 나라도 기지개를 켜고 어느 때보다 많은 선수단을 항저우로 파견했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참가 선수만 1만1970명으로 역대 최다이며 내년 파리 하계올림픽 출전 선수보다 1500명이 많다고 소개했다.

코로나19 자국 유입을 막겠다는 이유에서 2020 도쿄 올림픽에 일방적으로 불참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징계를 받았다가 2018 자카르타·팔렘방 대회 이래 5년 만에 국제 스포츠 무대에 복귀한 북한도 185명의 선수를 항저우로 보냈다.

참가 선수들은 정식 종목 40개, 세부 종목 61개에 걸린 금메달 481개를 놓고 국가의 자존심을 앞세워 경쟁자와 싸운다.

역대 최다인 선수와 임원 1140명을 파견한 우리나라는 양궁과 수영, 태권도, 소프트테니스, 바둑 등 강세 종목을 앞세워 금메달 최대 50개를 수확해 종합 순위 3위를 차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우리나라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대회에서 1994년 히로시마 대회 이래 24년 만에 일본에 아시안게임 종합 2위를 내줬다.

일본은 안방에서 치른 2020 도쿄 올림픽에서 금메달 27개를 획득해 3위에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개막 사전 경기로 남자 축구, 남자 배구, 비치발리볼 등이 일정을 시작했으며 개막 이틀째인 24일부터 본격적인 메달 레이스가 시작된다.

황선우(수영), 우상혁(육상), 안세영(배드민턴), 신유빈(탁구), 이강인(축구) 등 각 종목 특급 스타로 발돋움한 한국의 간판 얼굴들이 파리 올림픽 전초전 성격의 이번 대회에서 세계를 상대로 위대한 도전을 이어가며 환희의 순간을 준비한다.

개회식은 세계에 자랑할 만한 항저우의 량주 문화와 역사를 중심으로 꾸민 개막 공연과 각 나라 선수단 입장 등 120분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남자 사브르의 간판으로 항저우에서 역대 한국인 아시안게임 최다 금메달 신기록에 도전하는 구본길(펜싱)과 김서영(수영) 공동 기수를 앞세운 한국 선수단은 태극기를 휘날리며 올림픽 스포츠센터 스타디움에 입장한다. /연합뉴스

AFP, 주목한 선수 8명에 페이커·안세영

페이커

안세영

페이커 이상혁 e스포츠 베테랑
배드민턴 안세영 국제대회 9승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을 이틀 앞두고 AFP통신이 선정한 주목할 선수 8명에 페이커(e스포츠)와 안세영(배드민턴)이 이름을 올렸다.

AFP통신은 21일 "전 세계적으로 정상급 기량을 가진 선수들이 올해 아시안게임에 출전한다"며 주목할 선수 8명을 소개했다.

e스포츠에 출전하는 페이커에 대해 AFP통신은 "본명이 이상혁인 페이커는 e스포츠의 전설적인 존재"라며 "리그 오브 레전드의 역대 최고 선수로 평가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금메달을 따낼 경우 한국 선수들은 병역의무를 면제받는다"고 덧붙였다.

이상혁은 선수 생명이 짧은 e스포츠에서 20대 후반의 나이에도 정상급 기량을 발휘하는 베테랑이다.

배드민턴 안세영을 두고 AFP통신은 "올해 9차례 국제 대회에서 우승했고, 세계 랭킹 1위까지 오른 선수"라며 "다만 전 세계 랭킹 1위 야마구치 아카네(일본)와 중국 선수들의 도전을 이겨내야 한다"고 전망했다.

이 통신은 이 두 명 외에 육상 남자 높이뛰기 무타즈 에사 바르심(카타르), 남자 창던지기 니라즈 초프라(인도), 수영 여자 접영 이케에 리카코(일본), 남자 평영 친하이양, 여자 테니스와 골프에서 우승 후보 1순위로 꼽히는 정친원과 인뤄닝(이상 중국)을 이번 대회 주목할 선수로 꼽았다.

이 가운데 2021년 도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바르심은 우상혁과 금메달을 놓고 경쟁할 것으로 예상되는 '라이벌 선수'다.

초프라는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2021년 도쿄올림픽, 올해 세계육상선수권을 연달아 제패한 '금메달 후보 0순위'다.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6관왕에 오르고 최우수선수(MVP)에도 뽑혔던 이케에는 이후 백혈병을 이겨내고 이번 대회에서 다시 물살을 가른다.

현재 여자 골프 세계 1위 인뤄닝은 중국 골프의 전설 펑산산 감독의 지도 아래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도전한다. /연합뉴스

이강인, 항저우 입성…"좋은 결과 내겠다"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나서는 태극전사 중 가장 주목받는 선수인 남자 축구 대표팀의 간판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이하 PSG)이 마침내 결전지인 중국에 입성했다.

이강인은 21일 오후 항저우 샤오산 국제공항을 통해 중국 땅을 밟았다.

검은색 상·하의에 짙은 회색 상의를 받쳐 입고 검은 모자를 쓴 채 캐리어를 끌고 입국장에 들어선 이강인은 미소를 지어 보이며 인사했다.

입국장엔 취재진이 장사진을 이뤘고, PSG 유니폼 등을 들고 그를 기다리는 팬들도 일부 보였다. 이강인은 바쁘게 발걸음을 옮기는 틈틈이 팬들에게 사인은 잊지 않았다.

올해 7월 프랑스의 명문 PSG로 이적이 발표됐을 때쯤 아시안게임 최종 엔트리에도 승선한 지난달 하순부터 왼쪽 대퇴사두근 부상에 시달리며 우려를 낳았다.

성인 국가대표팀의 9월 유럽 원정 A매치 2연전 명단에 빠지고 소속팀 경기에도 나서지 못한 가운데 아시안게임 합류 시점마저 불투명했다.

그러다 14일 밤 대한축구협회와 PSG가 합의에 도달, 20일 새벽(이하 한국시간)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도르트문트(독일)와의 홈 경기에 출전한 뒤 합류가 결정됐고 이날 마침내 황선홍호에 가세했다.

2019년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에서 한국의 준우승을 이끌어 대회 최우수선수에 해당하는 골든볼을 수상, '한국 축구의 미래'로 불려 온 이강인은 이제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정조준한다.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획득하면 병역 혜택이 주어져 유럽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는 데 가장 큰 변수를 해소할 수 있게 돼 동기부여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이강인은 "형들과 친구들, 저보다 어린 친구들과 좋은 결과를 꼭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대회 각오를 밝혔다. /연합뉴스

이강인

탁구, 21년 만의 금메달 도전 "만리장성을 넘어라"

21년 만의 아시안게임 탁구 금메달을 향한 대담한 도전에 '북한'이라는 변수가 등장했다.

주세혁 감독이 이끄는 한국 남자 대표팀과 오광헌 감독이 지휘하는 여자 대표팀은 22일 항저우의 궁수 캐널 스포츠파크 체육관에서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탁구 남녀 단체전 예선 첫 경기를 소화한다. 남녀 단체전과 남녀 단·복식, 혼합 복식 등 금메달 7개가 걸린 아시안게임 탁구의 첫 경기 일정이다.

한국 대표팀의 이번 대회 목표는 남자 복식(이철승 유승민)과 여자 복식(이은실 석은미)에서 금메달 2개를 따낸 2002년 부산 대회 이후 끊긴 '금맥'을 21년 만에 잇는 것이다.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는 방법은 어렵지만 단순하다. '세계 최강 중국'을 이기면 된다.

그런데 이번 대회에 출전하는 한국 여자 선수들에게는 과제가 하나 더 있다. 기량이 거의 파악되지 않은 북한 선수들과 껄끄러운 승부를 펼쳐야 하는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

북한은 여자 탁구에 5명, 남자 탁구에 3명의 선수를 파견했다. 북한은 전통적으로 여자 탁구에서 강세를 보여왔는데, 이번에 출전하는 여자 선수들 모두가 2000년대생 '신예'들이다.

특히 아시안게임에서 7차례 연속으로 결승에서 중국에 져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던 남자 대표팀은 이번만큼은 금메달을 목에 걸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남자 단체전에는 장우진(무적), 임종훈, 안재현(이상 한국거래소), 박강현(한국수자원공사), 오준성(미래에셋증권)이 출격한다. 아시안게임 전초전으로 열린 평창 아시아선수권대회 단체전 결승에서 중국에 져 은메달을 따낸 여자 대표팀도 이번에는 '만리장성'을 넘어보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연합뉴스